

# ‘올림픽 제패’ 안세영… 작심 발언 쏟아냈다

결승 직후 믹스트존·기자회견서 잇따라 대한배드민턴협회 직격 선수단 보호 관련 아쉬움 토로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은 불참 “권력보다 소통 이야기하고파”



‘서툰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겨냥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협회의 선수 보호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안세영은 지난 5일(한국 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해 8월 세계선수권대회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 정상에 오르며 배드민턴 여자 단식 4대 대회를 제패하는 그랜드슬



안세영이 지난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펔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에 입을 맞추고 있다. 뉴시스

램에 아시아선수권대회만 남겨두게 됐다.

안세영은 결승전 직후 믹스트존에서 “꿈이 이뤄지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이제 숨이 쉬어진다”며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새벽과 오전, 오후 훈련을 하면서 체력 관리에 집중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

유”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세영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천위페이(중국)를 상대하다 무릎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참고 경기를 이어가며 단체전과 여자 단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으나 귀국 직후 검진에서 슬개건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고, 2개월여 통증이 이어지자 재검을

받았으나 짧은 시간에 좋아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부상 때문에 매 순간 두려웠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나올 수 없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실망했다”며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너무 크게 실망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얘기를 잘해 봐야겠지만 많은 실망을 했다”며 “저는 계속해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제 기록을 위해 국제 대회를 출전하고 싶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어떻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영은 믹스트존 인터뷰에 이어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팀 관리 소홀이 결국 국제 대회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견딜 수 있다. 국가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것은 선수들에게 아박하다”며 “협회가 모든 걸 막고 있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음에

도 금메달 한 개 밖에 안 나온 결과를 보고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대한 여파는 컸다. 김학균 감독이 “국가대표팀이 아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몸 상태와 일정에 맞춰 모든 훈련을 진행했다. 경기 출전을 강요한 적은 절대 없고, 부상을 방지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 조사도 예고됐다.

안세영은 코리아하우스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대신 SNS를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에 또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 언젠가는 이야기드리고 싶었다”며 “누군가와 경쟁하듯 이야기드리기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안세영, 고향·모교서 응원전 ‘후끈’

나주시민·광주체고 등 응원 펼쳐 한마음 한뜻으로 금빛선전 기원  
“역경극복·세계제패… 자랑스러워”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의 안세영 선수(22)가 파리올림픽 단식 금메달을 확정 짓는 순간 그녀의 고향 나주와 모교 광주체육고에서는 감격에 가득 찬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이 열린 지난 5일 오후 나주 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나주시민 등 200여명이 모여 안세영 선수의 승리를 기대하며 응원전을 펼쳤다.

시민들은 저마다 ‘나주의 딸 안세영, 너

만 보여’, ‘국민 영웅 안세영 그랜드슬램 달성 기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한마음 한뜻으로 안 선수의 금빛 선전을 기원했다.

안 선수가 강력한 스매시로 득점을 올릴 때마다 시민들은 양손에 든 막대풍선을 연신 부딪치며 “안세영”과 “금메달”을 연호했다. 안 선수가 실점하더라도 탄식과 아쉬움은 잠시, “괜찮다”, “할 수 있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선수가 회심의 서브로 2세트를 21-16으로 마무리 짓고 세트스코어 2-0으로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 응원장은 시민들의 함성에 떠나갈 듯 울렸다. 응원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열띤 환호를 내지르며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다.



나주 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는 안세영 선수 응원장이 지난 5일 오후 마련됐다. 나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나주시, 나주시의회가 후원한 이날 응원전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나주시민 등 2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안 선수의 초·중·고교 1년 후배라고 밝힌 김소정(21)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함께 해오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영 언니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가

지게 됐다”며 “올림픽이라는 영광의 무대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친 선배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세영 선수의 모교 광주체육고에서도

안 선수를 향한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다.

시청각실 도담마루에 모인 광주체중·고 학생과 교직원 등 60여명은 ‘금메달 따고 휴가 가자’, ‘안세영이 진짜 세영’ 등 재치 있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흔들며 환성을 내질렀다.

안 선수의 올림픽 무대 제패를 지켜보던 김명자 광주체고 배드민턴 감독은 “안세영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앞만 보고 최선을 다했던 선수”라며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몽글하고 애잔한 마음이 든다. 아끼던 제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좋은 결실을 맺어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세영이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리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불굴의 투지를 바탕으로 세계 정상에 올라선 제자가 자랑스롭다.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